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3.물

3.물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오대산의 세 번째 이야기

물

태초의 생명은 바다에서 출발하였고, 인류의 4대 문명은 큰 강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어머니의 양수 안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다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물

불교에서 물의 의미는 대승불교로 오면서 종교적인 신성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대승불교의 물과 관련된 부분은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와 극락정토사상 중 '구품연지(九品蓮池)'를 들 수 있습니다. 해인삼매는 물의 본체적인 맑고 깨끗함을 나타내고 구품연지에는 물을 통한 재생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유교에서의 물

유교에서는 물이 목적이 되거나 상징성을 갖지 않습니다.
공자는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논어 자한편)
라며 변화와 지속의 중요한 개념을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도교에서의 물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 즉, "지극히 선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아래로 흐르는 물의 성질에 선을 비유한 구절로 물의 덕을 본받으면 도(道)에 가까운 삶을, 즉 물을 이루는 인간 완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로 물을 신성시한 것입니다.

*인용: 한강시원지체험관 전시 자료

문헌 속 우통수(于筒水)

우통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연의 〈〈삼국유사〉〉 편에 '신라의 보천, 효명태자가 수도하며 날마다 우통수의 물을 길어 차를 끓여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입니다. 이후, 권근을 비롯한 많은 문인이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언급하였습니다.

권근, 〈오대산서대수정암중창기〉, 〈〈국역 동문선〉〉권80

서대 밑에서 샘이 솟아나서, 빛깔과 맛이 보통 우물물보다 낫고 물의 무게 또한 무거운데 우통수라고 한다. 서쪽으로 수백 리를 흘러가다 한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가는데, 한강이 비록 여러 군데서 흐르는 물을 받아 모인 것이지만 우통수가 중령(中泠)이 되어 빛깔과 맛이 변하지 아니하며, 마치 중국의 양자강과 같다. 한강이라 이름 짓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원문) "西臺之下, 有檻湧出, 色味勝常, 其重亦然, 日于筒水, 西流數百里而爲漢江以入于海, 漢雖受衆流之聚, 而于筒爲中泠, 色味下變, 若中國之有揚子江, 漢之得名以此"

김창읍, 〈오대산기〉, 〈〈삼연집〉〉

우통수를 찾아갔다. 외진 곳에 있는데 물빛이 깨끗하여 다른 샘보다 나은 듯하다. 물맛은 마찬가지로 달고 향긋하다. 세상에서 한강 물이 우통수에서 발원한다고 하는데, 애초 발원지로 우통수를 선택한 데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원문) "往尋于筒水, 處僻而 色潔, 似勝諸泉, 味則一般甘香, 世稱漢江水發源於于筒, 當初所取舍意必有在"



삼연집(한국학중앙연구원)

한반도 문명의 발원지, 한강

삼국시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한반도의 패권을 쟁취할 수 있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고려의 수도는 각각 경주와 개성이었지만 여전히 한강 유역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 되면서 한강의 위상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영광은 오대산에서부터

이런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 바로 오대산국립공원입니다. 발원지는 성격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발원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대산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분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인 한강 기맥이 시작되는 지점(오대산 두로봉)이 있어 한강의 중심적 발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진정한 발원지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우통수' 입니다.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오대산 우통수



우통수와 안내 표지석

한강의 진짜 시원지는 금강연?

월정사 주차장에서 금강교를 지나 월정사로 들어가기 전 왼쪽으로 금강연이 있는데 이곳은 오대산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물이 한번 쉬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금강연 주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면이 모두 너럭바위고 폭포는 높이가 열 자다. 물이 휘돌아 모여서 못이 되는데, 용이 숨어있다는 말이 전해온다. 봄이면 열목어가 천 마리, 백 마리씩 무리 지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이 못에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맥질한다. 힘을 내어 폭포로 뛰어오르는데 혹 오르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반쯤 오르다가 도로 떨어지기도 한다."

현재 열 자 높이의 폭포, 수천 수백 마리의 열목어는 없지만, 여전히 우렁찬 소리를 내는 작은 폭포와 수십 마리의 열목어가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기에 충분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강의 시원을 물이 솟구치는 곳을 말하는데 우통수는 물이 고여 흘러 이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강연의 지반에서는 물이 솟아오릅니다. 실제 금강연을 한강의 시원으로 언급하는 고문헌이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말하는 문헌보다 많습니다.



오대산 금강연